



부화업도 이제는 과학이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최고의 생산성 추구

화정부화장

취재 · 기사 : 김용진 전무, 김미희 주임



▶ 화정부화장 전경



▶ 부화기 최대 입란수는 월 40만개 정도임.

나주 옥정리 작은 도로로 들어서 화정부화장으로 가는 길은 탁 트인 강도 그러하거니와 열게 깔린 석양을 담아 금빛으로 반짝이는 물결이 시간마저 정지시킨 듯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림처럼 펼쳐진 경치를 뒤로 하고 부화장에 다다르자 소독작업에 여념이 없는 사장님 내외분과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올해로 부화업 9년째를 맞고 있는 화정부화장은

1998년 2월경 부화장 건립 당시, 부지를 마을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 선정했음에도 축사가 들어오면 냄새나고 시끄럽다는 선입견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시달려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신 대표는 그럴수록 쾌적하고 조용한 시설조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 그에 맞는 설비를 갖추는 데 힘썼다. 그래서인지 여타 축사는 물론, 제조 및 가공공장보다도 더 조용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부화기 입란 준비 모습

현재 화정부화장은 34대의 부화기에 주당 최대 입란수 9만 8천여개, 월 40만 개 정도로 국내 오리부화장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78%~86%에 이르는 부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질 좋은 새끼오리만 생산

화정부화장의 경영모토는 바로 「고품질의 건강한 새끼오리 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부화업에 종사하는 만큼 다양한 문제일 수 있으나 사실 기본을 지킨다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던가.

그런 연유로 종오리 사육관리에서부터 입란, 사육농가에 보낼 새끼오리 선별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생산된 고품질 새끼오리는 좁게는 사육농가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고, 넓게는 전반적인 품질을 높여 업계에 있어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다.

과학적인 축사설계

축사를 지을 때는 처음부터 완벽을 기해야 한다는 철칙만큼이나 이 대표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종오리 사육장 시설이다.

전남 영암군 덕진면에 위치해 있는 제 1사육장은 기존 무창계사에서 약간 변형 · 보완한 축사시설로서, 완전 무창계사가 유속으로 체감온도를 빠른 시간 내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봄 · 가을과 같은 환절기에도 하루 종일 환풍기 팬을 돌려야 하므로 낭비되는 부분이 많고 채광상태가



▶ 제 1종오리 사육장 내 모습, 강한 유속으로 열 스트레스 감소



▶ 벽면에 설치한 윈치커텐으로 상하조절 가능

좋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제 1사육장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축사 옆면을 개조하여 윈치커텐을 설치, 자외선은 차단하면서 간접적인 조광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윈치커텐은 버튼식으로 자동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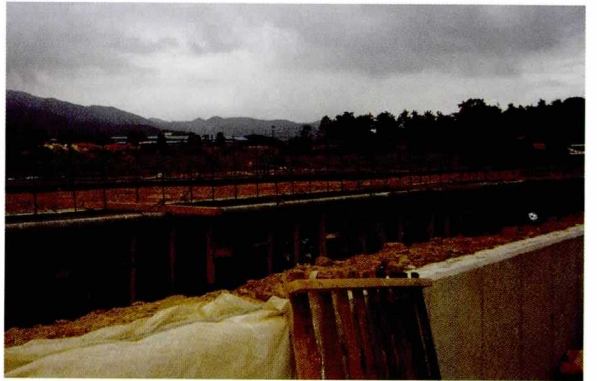
▶ 음수량 측정계



▶ 수압표시기. 수압이 떨어질 때 경보음이 작동하도록 장치 고안중



▶ 두 개의 급수파이프 중 하나는 일반 음수급수용, 하나는 약품급여용



▶ 현재 6개동 중 3개동은 운영중이며 나머지 3개동은 준공중임

또한 바람이 한 쪽으로만 유입되도록 만들어 유속이 더욱 강해져 열에 의한 스트레스(Heat Stress)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축사의 뼈대를 구성하는 빔의 사이즈는 보통 150×150의 것을 사용하여 옹벽 위에 얹고 나사로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기는 150×75 사이즈의 빔을 사용하고 빔을 옹벽 속에 심어 더 튼튼한 골격 구조를 완성하였다는 것이다. 종오리 사육에 있어서는 종오리 관리에 모든 사항을 데이터화하기 위해 그에 맞는 설비를 갖추었다.

음수를 위한 물통은 2개를 설치하여 1개는 일반 급수시, 1개는 약품 급여시 사용토록 분리하였고 총 음수량 측정을 위해 계량기를 설치하고 급수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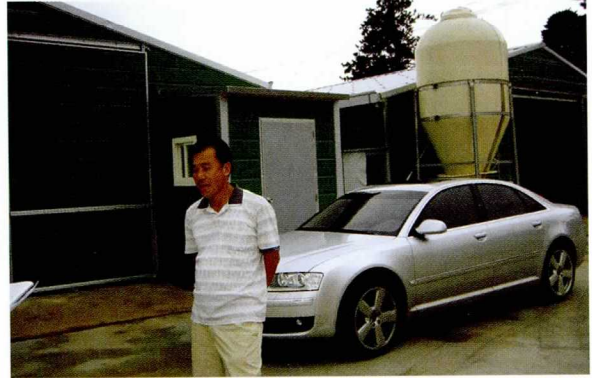
압이 떨어지면 경보기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사료는 사료통을 통해 자동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6~7시간만 급이하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시간을 기준으로 종란무게를 체크한 후 그에 따라 사료급여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단, 하절기에는 사료섭취량이 적어지므로 24시간 자유급여토록 한다.

이 대표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기간별로 체크하고 축적하여 화정부화장의 종오리 Database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이를 통해 종오리의 체계적 관리, 생산성 향상, 불필요한 인력감축 등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외관을 깔끔한 녹색으로 꾸밈



▶ 축사설명중인 화정부회장 이 신 대표



▶ 축사용 정수시설



▶ 전남 영암군 세지면 제2사육장 전경

기존 축사의 이미지 탈피

축사에 있어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 지역의 이미지화 · 브랜드화 바람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냄새나고 지저분한 축사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축사외관도 자연친화적인 느낌의 녹색으로 단장하였고 주변을 잔디밭으로 조성하여 축사의 이미지 쇄신에도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실, 일반 하우스식 축사의 경우 평당 8~10만원 가량이면 가능하지만 이런 방식의 축사의 경우는 그 외 시설을 별도로 해도 평당 건축비가 두세 배 더 높다.

그러나 이 대표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축사를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 하나의 과제

이 대표는 이곳을 지난 해에 매입하여 처음 종오리를 입식시켜 앞으로 사육성적을 체크한 후 추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지만 제 1사육장 못지않게 훌륭한 축사로 만들어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